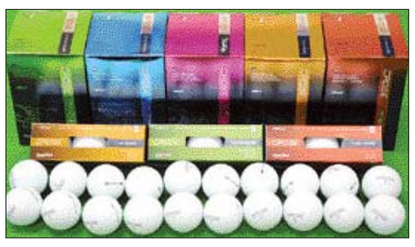
지역명품을 세계명품으로

창사 57주년 광주일보 캠페인

비거리·방향성…'굿샷' 대표 브랜드

⑯ 골프공 '이포스'

20년 쌓아온 기술력 세계 공략
국산 골프공 대약진 주도
메이저대회 제패 멀지 않아



굿-샷이 최근 출시한 신제품 골프공.

광주의 유일한 골프공 제조업체 ㈜굿-샷은 '이포스'라는 고유 브랜드로 세계를 공략하겠다는 야심찬 비전을 세워놓고 있다. 20년 가까이 쌓아온 기술력으로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골프공'을 만들어 국산 골프공의 대약진을 주도하겠다는 자부심이 대단하다.

이포스의 뿌리는 타이어 제조업체인 금호타이어로, 지난 1992년 4월 자체 생산한 골프공을 시판한 것이 시초다. 브랜드명인 '포스(POSE·Performance Oriented Sports Equipment)'는 현재까지도 광주·전남을 비롯, 전국 골퍼들에게 친숙한 브랜드다.

당시 금호는 40년간 쌓은 타이어 기술을 발판으로 중앙연구소 내 골프볼 개발팀을 설립, 10억원의 개발비를 들여 포스를 개발했다.

세계 10대 타이어 업체의 기술력이 발휘된 만큼 시판 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이후 '포스'는 세계적 골프볼 공인기관인 영국왕실골프협회(R&A)와 미국 프로골프협회(USGA)로부터 국제골프대회용으로 공인받았고 미국·일본·프랑스·독일 등 골프 선진국에 수출되기도 했다. 지난 1995년에는 국내 최대 비거리를 자랑하며 꿈의 볼로 불리는 '소프텍'을 국내 최초로 개발, 폭넓은 소비자를 확보하면서 국산 골프볼 시장의 선두 자리를 차지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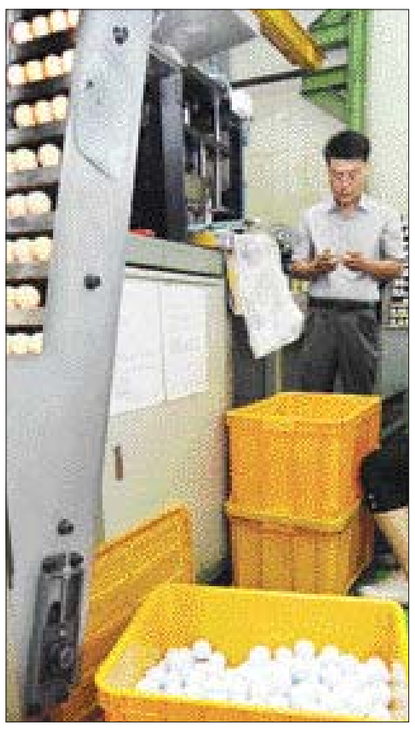
이 기술력을 그대로 이어받은 업체가 ㈜굿-샷이다. 금호가 지난 2002년 매각한 골프사업부를 지난 4월 재차 인수한 뒤 최근 5종의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국산 골프공의 눈부신 도약을 꿈꾸고 있는 것이다.

브랜드명도 국내 특허만 8개, 해외 10개국에서 3개 부문의 특허를 보유한 기술력을 한 단계 진화(Evolution)시켰다는 뜻에서, 기존 포스에 E를 붙인 이포스(EPOSE)로 바꿨다. 굿샷이 외국산 볼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것도 세계 최고의 골프공 메이커에 조금도 뒤지지 않는 기술력을 그대로 이어받아서다.

굿-샷 정태원 사업본부장은 "골프공은 단순하게 보이지만 복잡한 재료 배합, 공기 역학을 정확히 반영한 구조 설계와 이에 맞는 표면처리 등 고난도 기술이 녹아들어가야 한다"면서 "그동안 축적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이 신형 골프공에 그대로 담겨 있다"고 말했다.

굿-샷은 이번에 내놓은 스리 피스(three piece) 2종류와 투피스(two piece) 3종 등 모두 5가지 골프공이 비거리, 방향성, 터치감, 스핀 등 성능면에서 외제볼에 손색이 없는데다, 가격경쟁력도 있어 골퍼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굿-샷은 골프연습장 및 골퍼들을 상대로 홍보전략을 수립, 월 2만4천다스(28만개)의 생산 규모를 향후 3년 이내 월 5만다스(60만개)로 늘리는 한편, 신제품에 대한 미국·영국 골프협회 공인구 인증 추진 및 품질 향상에도 힘써 국산 골프공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50%까지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점차 골프백과 골프 의류도 만드는 골프용품전문회사로 사업영역을 넓혀갈 복안도 세워놓았다.



광주시 광산구 오선동 하남산단 내 굿-샷 공장에서 직원들이 생산되는 골프공의 불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김일출 굿-샷 기획관리실장은 "광주에서 생산되는 굿-샷 골프 티셔츠에 모자를 쓰고, '이포스(EPOSE)'골프공을 사용한 선수가 메이저대회를 제패하는 날이 멀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한우값 추석 한달 앞두고 고공행진

kg당 낙찰가 20%·산지 소값 35% 상승

추석을 앞두고 한우 가격이 치솟고 있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타결 이후 잠시 하락세를 보였던 한우값이 '추석특수'를 앞두고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31일 광주신세계 이마트에서 지난달 한우 등심(1등급)은 100g당 평균 7천380원으로 6천980원에 판매됐던 한 달 전보다 5.7% 상승했다.

도매가도 고공행진 중이다.

나주축산물공판장에 따르면 한우 1+A등급의 kg당 경매 낙찰 가격은 지난달 둘째 주(10~14일) 1만9천422원으로 지난해 평균 1만6천원대에 거래됐던 것이 비해 20%가량 올랐다.

지난달 셋째 주(17~21일) 한우 가격은 1만8천614원으로 소폭 하락했지만 지난달 31일 1만8천677원으로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산지 가축시장에서도 한우 큰 수소값도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농협에 따르면 한우 큰 수소(600kg 이상)는 올 1월 365만원에서 8월 중순(25일 기준) 493만원으로 35%나 상승했다. 특히 7월 중순 이후 급격한 오름세를 보이며 대부분의 가축시장에서 한 달 사이 100만원 이상씩 오른 상태다.

미국산 쇠고기 파동 이후 수입 쇠고기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쇠고기 이력제 등으로 '안전하고 질 좋은' 한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데다 '추석 특수'가 가세하면서 한우 가격 상승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나주축산물공판장 관계자는 "추석은 설과 함께 쇠고기의 대목이어서 한우 가격이 높게 형성된다"며 "하지만 추석이 지나면 한우값이 과도하고 오르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현금영수증 못받아도 소득공제

올해 상반기 변호사나 세무사, 예식장, 부동산중개인 등과 현금 거래를 했다가 미처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사람은 1일부터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서 거래내역을 조회해 신고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전문직사업자 등의 현금거래에 대한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올해도 상반기 중 18개 업종 사업자와 현금 거래한 소비자가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조회결과, 현금거래 내역이 빠졌거나 실제 낸 금액에 비해 적게 발급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9월 15일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견적서 등 거래 증빙을 첨부해 세무관서에 신고하면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적용대상 사업자는 작년에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등 15개였다가 올해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산후조리원까지 확대됐다. /연합뉴스

'잎새주' 아이디어 술~술 내보세요

보해 호남지역 대학생 대상 기획·마케팅 전략 등 공모전

보해양조는 10월 30일까지 광주·전남·전북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보해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신청 접수를 받는다.

올해로 6회째인 이번 공모전은 보해가 광주·전남 대학생들에게 자유로운 상상력과 숨은 아이디어를 맘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행사로, 올해는 전북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올해 주제는 '20~30대를 대상으로 한 주류 신제품 기획 및 마케팅 전략'과 '잎새주 브랜드 강화를 위한 통합 마케팅 전략', '타 분야 기업과의 제휴를 통한 마케팅 방안 제안' 등이다.

호남권 2년제 이상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대상은 200만원의 상금과 해외 산업시찰, 금상은 각 100만원의 상금과 함께 해외산업 시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은상과 동상에게는 각각 50만원과 30만원의 상금이 전달된다. /김지을기자 dok2000@